옥암·남악지구 아파트 할인 '갈등'

건설사 특혜·파격 할인공세…입주민간 갈등·가격하락 부추겨

목포지역에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건설사들이 할인분양에 나서자 기존에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1월 전남도청이 남악으로 이전하면서 목포 옥암지구와 무안 남악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지만, 경기침체와 더불어 미분양사태가 속출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취득세, 이사비용, 중도금 이자 등의 면제와 확장 시설비 등을 면제 또는 일부 부담해주는 명목으로 1천만원에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할인 세일에 나섰다.

옥암지구 A아파트는 확장비 1천만원을 감면해줬는가 하면 B아파트 역시 취득세, 이사비용 등 1천여만원에 달하는 할인혜택으로 분양 공세를 펼쳤다. 또 C아파트는 기존 입주자들이 장판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잔여세대를 분양받는 고객들에게 강화마루로 교체해주고 있다.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건설사들의 경우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이처럼 파격적인 방법을 동원, 잔여세대 처분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들 역시 대물로 받은 아파트들을 현금회전을 위해 수천만 원대까지 할인해서 매매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을 정도다.

이로 인해 원금은 물론 이자를 꼬박꼬박 물어가며 분양을 받은 기존 입주자들은 "건설사들이 입주민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옥암지구 김모(56)씨는 "인사발령 때문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구입한 지 8개월도 안 된 아파트를 당초 구입한 금액으로 지인에게 매매하기로 약속했다"며 "그러나 1천만원 할인된 동일 물량이 나오는 바람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자를 물면서 매입 희망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말 현재 목포 원도심과 상동을 제외한 미분양 아파트는 옥암지구 6개 단지에 1천433세대, 무안 남악지구 3개 단지 909세대 등 2천342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진도 검정쌀 '글로컬'하게 키운다

〈세계화+지역화〉

郡, 연내 주식회사 설립 육성사업 추진

진도군이 '검정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주식회사 설립과 가공식품 개발 등 조직화·규모화·세계화에 발벗고 나선다.

진도군은 매년 가격과 판로 불안정으로 검정쌀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검정쌀 글로컬(glocal) 산업육성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컬'은 세계화(Global)와 지역화(Local)를 합성한 용어로 향토자산을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진도군은 관내 농협과 검정쌀 관련 영농법인체를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 희망단체와 개인을 중심으로 검정쌀 관련 주식회사를 올해 안에 설립, 검정쌀 글로컬 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검정쌀 글로컬산업 육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0년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군은 ▲검정쌀을 이용한 가공품 생산 시설(14억원) ▲신제품 연구개발(3억원) ▲생산자 조직 및 유통·브랜드 개발(13억원)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검정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가공식품 개발과 소비를 확대하고 검정쌀 관련 단체를 하나로 통합,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故 김대중 전 대통령도 감동했던 진도 '명량대첩축제'

두차례 해전 재현…만장행렬 확대

10월 8일~11일 명량해협서 개최

진도 울돌목에서 오는 10월 열리는 '명량대첩 축제'의 재현행사와 만장 행렬이 크게 확대된다. 전남도는 올해 축제의 명량대첩 재현행사를 지난해 1차례에서 올해는 2차례로, 진도대교에서 이뤄지는 만장행렬 상여를 지난해 3기에서 올해는 7기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재현행사·만장행렬 확대는 지난해 축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문해 "재현행사와 평화염원 만장행렬을 확대하면 좋겠다"고 했던 뜻을 받아들여 축제 프로그램에 이를 반영하기로 해 이뤄졌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1일 진도 울돌목 현장에서 열린 명량대첩 축제장을 사전 방문일정 없이 찾아 재현행사를 관람하기도 했다.

고성혁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올해 축제는 두차례의 해전 재현과 함께 평화를 염원하는 만장행렬에 상여 7기를 동원해 진도대교 500m를 꽉 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명량대첩 축제는 오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도대교 일원인 명량해협에서 개최된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어업인 경쟁력 강화·소득증대 기여

연안어선 감척사업 희망자 조사

목포시, 대상어선 입찰 선정

연근해 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줄여 나머지 어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목포시가 '2009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연안어선 감척사업)' 희망수요자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5년부터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을 시행, 지난해까지 연안 어선에 대한 감척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근해 어선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근해 어선들의 어업경영이 호전되면서 사업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반면 연안 어선들은 고령화, 업종간 분쟁 등 감척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부터 연안 어선에 대한 감척을 재개했다.

지난해까지 선령 6년 이상의 허가 어선을 2년 이상 보유한 어선만 해당됐던 참가자격을 올해부터는 선령 3년 이상의 허가 어선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오는 3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당초 45척이 계획에 포함됐으나 지난 20일 현재 60척이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오는 9월 해당 어선의 신청을 받아 입찰로 대상어선을 선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목포시는 연안어선 297척, 근해어선 156척 등 총 453척을 감척해 700억원을 어업인들에게 지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신안서 '해양보호구역 대회'

27~28일 학계 및 NGO 단체 등 참가

'제 2회 해양보호구역 전국대회'가 27·28일 이틀간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갯벌관련 공무원과 학계 및 NGO 단체 등 1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와 전남도가 공동 주최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해양보호구역 관리모델 수립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보호구역 관리사례 공유 및 해양 관리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연산호 군락지인 제주도 문섬 생태계보전지역, 철새도래지인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등 12개 지역이 해양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증도면 갯벌이 갯벌 도립공원(12.8㎢)으로 지정된데 이어 지난 5월 26일 염전을 포함한 신안 다도해 지역(573㎢)이 우리나라에서는 설악산(1982)과 제주도(2002)에 이어 세 번째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국내외 갯벌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갯벌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